

최근 남조선당국이 대화의 방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것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남원에는 귀를 막고 그 무슨 「북변화」에 대해 계속 떠들고 있다.

그들은 공화국의 대화제의를 『정치공세』, 『평화공세』로 비하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떠드는가 하면 저들의 악랄한 『대북정책』의 연장에 의하여 파란된 금강산관광 문제를 놓고서도 『북의 변화 없이 재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공화국에 돌려보려고 꾀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의 파란과 관계개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족대결을 합리화해 보려고 계속 『북변화』론에 매달리는 조건에서 그 부당성과 반민족적, 반통일적 본질을 다시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자주성이 결여된 남조선에는 원래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떠드는 『변화』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 세기 80~90년대 미국은 동유럽나라들을 봉파시킬 목적으로 『일국화된 세계』, 『세계화』를 요란스레 떠들면서 그 나라들에 서방식 가치관 즉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로의 『이행』과 『변화』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그 무슨 『변화』론은 이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식 가치관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듭으로써 다른 나라와 민족의 특성과 차이, 민족문화를 험생시킬 것을 본질적요구로 하고 있는 『세계화』는 나오자마자 인류의 규탄을 면치 못하였다.

더우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는 누가 해야 하는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의 폐인적 지위가 무너지고 국제정치구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세계화』는 한갓 휴지장으로 되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쇠퇴해가는 미국의 웃자락에 매달려 그들 아래서 저들의 권리와 안락을 부지하기 위해 혁사의 오물통에 치박힌 『세계화』를 다시 그 집어내여 『북변화』론으로 채색하여 내돌리고 있는 것이다.

『북변화』론은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책임을 한사코 공화국에 넘겨씌워보려는 과학적 한계이다.

『북변화』론은 상대방의 체제와 태도가 변해야만 무엇을 할수 있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유치한 주장으로 페어진 반통일궤변이다.

이른바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비핵, 개방, 3,000』에 뿐만 아니라 『북변화』론은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결론이며 분열의 지속으로 권력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구집권론이다.

남조선당국은 처음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북남관계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는 민족의 의사은 안중에 없이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포 사격도발을 감행하여 정세를 의도적으로 최극단으로 몰아간 것도 그렇고 그 무슨 『조선』과 『진정성』, 『태도변화』를 떠들며 대화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남관계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대결의식만이 짙게 치달았다.

남조선당국은 첫날부터 북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의 악랄한 파괴자, 유린자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북남대화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념일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힘으로부터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시종일관 북남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동

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과국에 물어넣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북남대화의 파괴자, 유린자로서의 남조선보수당국의 정체와 반통일적 죄행을 내외에 날날이 발가놓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북남공동선언의 부정과 유린말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는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이다.

그동안 우리와 남조선의 이전 당국사이에는 북남공동선언의 행위를 위한 대화와 접촉들이 수많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 커다란 전진들이 이루어졌다.

현 남조선보수당은 집권하자마자 그 모든 대화들을 하루아침에 단절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들을 어지럽히기 짓밟아버렸다.

피뢰보수당은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온 민족과 전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용공리적 문서》니, 《정치인들이 평양에 가서 수표하고 왔다고 하여 후임자가 리행하는 것은 아니》라느니 하면서 전면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리행을 위한 북남대화들을 국력 방해 하였다.

당시 야당으로 있던 피뢰보수당은 《지금까지 대화가 진정한 대화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10.4선언리행을 위해 2007년 11월과 12월 우리와 이전 남조선당국사이에 진행된 북남총리회담과 북총리급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회의를 비롯한 20여 건의 북남대화 및 협력 사업들이 모두 파탄되였으며 그것으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관련한 북남당국사이의 실무협상도 피뢰당에 의해 파탄되었다.

원래 해주지역과 그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는 남조선당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대이지만 평화와 공동번영의 견지에서 대범하게 받아주어 10.4선언에 반영된 문제이다.

우리측은 해주항지역에 대한 남측의 현장조사까지 허가해주면서 그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상들에 적극 힘하였다.

그러나 피뢰당은 무력대고서 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는 《북방한계선》을 날려보내려는 북의 전략이라니, 그에 맞아들여서는 안된다니 뛰어나면서 반대해 나섰으며 남조선기업들이 현장조사도 못하게 하여 결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는 이전 《정권》 때인 2007년 말에 한번 진행되고 그 후 더 열리지 못한채 막을 내려야 했다.

북남당국대화의 전면파탄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기준대화들을 모조리 끊어버렸을 뿐 아니라 북남관계의 파국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화노력을 대해 한사코 외면하였다.

피뢰보수당의 악랄한 방해책으로 하여 2008년 1월말부터 2월사이 개성에서 우리와 이전 남조선당국사이에 진행된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와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북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비롯한 10.4선언리행을 위한 일련의 대화와 접촉들이 아무 결실도 보이지 못하고 유아무야되었다.

피뢰당의 반대화책 등은 2008년 2월 《정권》 문재를 내건 후 정책화되어 국도로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피뢰보수당은 일토당도 않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대북정책》으로 정식 선포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

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과국에 물어넣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북남대화의 파괴자, 유린자로서의 남조선보수당국의 정체와 반통일적 죄행을 내외에 날날이 발가놓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과국에 물어넣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북남대화의 파괴자, 유린자로서의 남조선보수당국의 정체와 반

통일적 죄행을 내외에 날날이

발가놓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과국에 물어넣었다.

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